

홍천 속초저수지서 수질오염 대응 합동훈련... '현장대응 역량 강화'

✎ 유승현 | ⓒ 승인 2025.06.26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홍천춘천지사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홍천춘천지사(지사장 황희동)는 최근 홍천 속초저수지에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방재단 합동가상훈련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홍천춘천지사(지사장 황희동)는 최근 홍천 속초저수지에서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방재단 합동가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를 비롯해 원주시사, 철원지사,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운송 차량 전복에 의한 유류 유출 사고와 고온기에 급속히 확산된 녹조 상황을 가정해, 사고 초기 대응부터 수습까지 전 과정을 현장 중심 훈련으로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훈련을 통해 장비의 실효성과 배치 타이밍, 오염 확산 방지 조치 등의 중요성을 체감, 실제 사고시 대응 능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홍천춘천지사(지사장 황희동)는 최근 홍천 속초저수지에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방재단 합동가상훈련을 실시했다.

황희동 지사장은 "농업용수의 수질 안전은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가상훈련과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승현 기자



